

영유아 학대예방의 간호실무적 접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한 경자

1999. 5. 4.

영유아학대의 요인과 예방의 필요성

아동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따라서 미래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인 아동의 건강과 바람직한 건강행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함은 현 시대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또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가정내의 문제로 숨겨져 왔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영유아의 학대에 대한 국내의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정의에 대해서도 더욱 모호해진다. 아동이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직면하는 사회, 경제 및 건강문제와는 구별되고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아동 부당취급(Child Maltreatment)'이라는 용통성 있는 용어도 '아동학대'의 용어 대신 문현상에서 자주 눈에 띤다(Barnett, 1997; D'antonio & Lean, 1993; Korko 외, 1998). Phillips(1998)는 아동발달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주고 연속하여 개인 정체감 및 자존감 저하의 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 기술결여 등을 포함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언명하였다. Barnett(1997)은 어떠한 사회적 위험요인 보다도 아동 부당취급만큼 아동에게 병적인 발달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없고 더욱이 생후초기 영아가 받은 부당취급 경험은 전 일생동안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아동학대, 부당취급 혹은 아동의 훈육은 각 문화마다 부모역할 내지 양육관행의 신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돌봄 혹은 부당취급의 보편적 기준이 없다. 또,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족내의 맥락으로 보여지지만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의 근본적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이기 보다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무능력한 형태에 초점이 있다(D'antonio 외, 1993). McCullough & Scherman(1998)은 연령이 낮은 어린 엄마들은 모성으로서의 정체성 미확립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고 청소년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도록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국내에서 발표된 몇 편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어머니에게 간파할 수 없을 정도의 자녀돌보기 부담감과 영유아 돌보기의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지지요구도가 높다는 것이 파악되었다(권미경, 1995; 한경자 외, 1994; 한경자, 1997). 특히 첫째보다 둘째 자녀의 영아어머니에게서 지지요구도가 현저하게 높았던 것은 조경자 외(1997)의 연구결과에서 저체중출생아의 산모에게서 교육요구도가 초산모보다 경산모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로서 주목할 만하다. 영아어머니의 부담감은 어머니 자신의 사회, 경제, 교육적 수준, 발달수준 그리고 특수한 건강조건등에 따라 다르고 영아에게 건강 문제가 있거나 미숙한 영아의 출산등은 복합적인 돌봄의 요구로 인해 그 부담감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준 바 있다. 영아어머니의 자녀돌보기로 인한 이러한 부-

담감은 그 정도가 심해져 해소방법을 자녀에게 향해서 찾으려 할 때 영아학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Azar,1990) 조기에 중재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 예로서 Straus와 Gelles(1986)의 연구에서 체벌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발생율이 높다고 한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 그리고 모·아 애착형성의 부족이 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조산, 장애등의 문제를 가진 영아에게 피학대의 가능성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Straus와 Gelles,1979). 영유아를 부당취급하는 부모의 특성으로는 흔히 적절한 자녀양육 기술의 결여 현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아의 울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Frodi & Lamb,1980).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모형에서 안혜영(1998)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들의 양육태도, 즉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및 적극적 참여의 성향은 아동학대 잠재성 및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영유아기의 아동은 발달상의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취약그룹이다. 그러한 취약성은 다른 연령층의 아동 군보다 더욱 학대를 초래케 하고 심지어 영아 사망의 원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취학 전의 어린 영유아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같은 시설에서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의해 관찰될 기회가 없고, 자신을 표현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상과 의도적인 손상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영유아의 학대는 더욱 들어나지 않고 실 발생율보다도 훨씬 더 낮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이 학대의 의도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체벌 혹은 훈육의 의미라면 아직 정당화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자녀의 훈육이 가정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김승권,조애저,1998). 반면 우리 사회는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학대받는 영유아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Allasio & Fisher(1998)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자 친구에 의해 장기간의 신체적 손상학대를 받고 할머니의 발견으로 Michigan의 주 병원 응급실에 내왕했던 4세 아동의 사례를 들면서 아동에게 신체적 통제, 심한 통증과 고통을 가하며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의도적이라는 고문의 기본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고문(torture)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예는 국내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자주 지역주민들의 신고로 보고되고 있는 예를 뉴스로 보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 속에서 아동학대는 아직도 그 정의가 분명치 않다. 또한 사회, 경제 및 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아동학대초래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의도하지 않은 요인들과 의도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현 시대 많은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능력 결여, 모성 정체감이나 자존감 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영역이다. 후자의 의도된 학대는 우리 사회의 체벌훈육 정당화와 폐쇄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되는 영역

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고, 손상이 큰 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접근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개념적 정의이다. 아동학대, 부당취급 그리고 훈육의 범위는 각각 무엇인가?

구체적인 접근방안 도출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아동에게 신체, 심리, 사회적 잠재력의 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조건을 포함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중재는 위에서 언급한 비의도적인 초래요인에 대하여 부모역할수행의 근간이 되는 자녀와의 관계향상을 기초로 모성정체감 및 자존감 증진, 양육지식 및 기술 습득 그리고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의 확립과 양육부담감해소에 역점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의도적이건 의도적인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선 가능한 한 영아초기에 조기발견을 위한 사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조기중재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가족밀착도가 극도로 약화된 현 시대를 자녀양육과 부모역할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양식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간호실무는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출산전후의 영유아부모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아동에게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 환경이 되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해 줄 조기중재가 가능한 최상의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의 책무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실정을 배경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닥아와 있다. 간호학 분야에서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을 사정하고 문제를 조기발견함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일찍이 Rheingold(1973)는 미래사회가 건강하기 위한 현 사회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을 기르는 것(Rearing)'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동을 기르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이 막중한 과업은 부모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하여 간호학분야에서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한 중재는 위에서 언급한 비의도적인 초래요인 대에선 첫째, 부모역할수행의 근간이 되는 출생초기자녀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개입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둘째, 모성정체감 및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셋째, 양육지식 및 기술 습득 넷째,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의 확립과 다섯째, 양육부담감해소에 역점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의도적이건, 의도적이건 영유아학대예방을 위해선 가능한 한 영아초기에 조기발견을 위한 사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정과 증진

과도한 훈육, 자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부모능력의 결여 그리고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능력간 불일치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부적절성이 선행하는 요인으로서 인식되어왔다 (Daro, D.& McCurdy, K.(1994). 자녀들보기에 부담을 느끼는 영유아의 부모들은 혼히 그들 자녀의 요구충족능력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자녀의 성장지연이나 영유아학대 및 방임으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신생아의 보편적 위험요인으로서 학대예방의 근원적 요소인 부모-자녀관계는 가능한 한 영아의 출생초기에 사정될 필요가 있다(Chestnut,M.A., 1998)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결과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는 영아측에선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부모측에선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Bigner,1985).

상호작용증진 중재는 부모와 자녀가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이 민감하게 사정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영아의 출생즉시 수유상황이나 어머니가 수유 후 영아를 안고 있을 때, 상호교류가 얼마나 호혜적이고 만족스러운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나 반응성을 높여줌으로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부모-영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부모-영아의 상호작용 시작을 통해 부모는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자존감증진과 더불어 부모역할수행에 대하여 여유를 찾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권미경(1997)의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영아어머니들이 영아를 수동적인 개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아의 상호작용 유도행동신호에는 비교적 민감하였으나 회피행동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owne(1995)은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소와 함께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사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Bigner(1985)는 부모역할은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Gordon(1972)은 신(God)이 아닌 부모들은 부모되기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대하여 비난을 받으며 새로 부모가 된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의존적인 자녀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고 양육하여 생산적이고 협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길러내야 할 책임을 무조건 수용하고, 자신의 요구는 자녀의 요구 다음으로 회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모들도 발달하고 있는 인간존재로서 수용감을 얻을수 있는 양육태도상담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한 바 있다. 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수행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모에게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갖고 조직적이고도 계획된 노력을 하므로서 가정에서 부모가 그들 자녀의 돌보기 관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다.

출생부터 3세에 이르는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그들 자녀의 요구에 대한 인지기술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혹은 양가감정에 대한 치료, 그리고 영

유아 발달과 그들의 돌보기 기술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을 복합시킨 부모-자녀 상호작용 모형의 중재프로그램을 조산아출생가족에게 적용한 Bromwich(1981)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양육 행동과 부모-영아 상호작용 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영아의 발달에 바람직한 효과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Bromwich(1997)는 입양아 양육모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작용 중진중심의 중재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P.T.(Active Parenting Today),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한국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에서 개발한 '자녀와의 대화기법', '자녀교육관 정립' 등이 있으나 대부분 학령기와 사춘기 아동을 가진 부모대상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소개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신생아나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의 지식이나 기술습득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강북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외에는 찾을 수 없다. 또 병원부모교실 교육내용은 거의 전문의학적 지식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인 자녀돌보기의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병원외래의 산전 클리닉, 보건소의 모성실 혹은 영유아실, 분만후 병원입원 기간동안, 그리고 지역사회 시설에서 부모역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사전건강지도의 활성화

병원 육아상담실이나 보건소 모성실, 영유아실등에서 수행되는 사전건강지도의 목적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증진, 예상되는 발달 변화에 대하여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준비 기회제공,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육아기술을 습득하고 반복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촉구, 일상생활에서의 대처능력 증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부모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육아 상담실에서의 사전 건강지도는 주로 예방접종과 계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영유아의 건강지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상담실의 사전건강지도는 간호실무차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할 중요 접근법의 하나이다. Brazelton(1995)은 가족에 대한 지지와 안내는 가족내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녀의 발달과 더불어 각 단계의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에게 자녀돌보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격려 및 지지를 해주어야 할 사전 건강지도의 책임이 전문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가정간호 프로그램

가정간호는 간호사가 가정환경에서 직접 영유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 때문에 영유아학대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처음 아동을 위한 방문간호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Health Visitor로서 그들의 주된 업무는 5세미만 영유아 어머니에 대한 건강교육이었다. 국내의 경우 현재 보건소의 방문간호 프로그램, 병원의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독립형 가정간호사업은 주로 가정에 있는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가정간

호사업에 의뢰되는 영유아수요자는 매우 미미하고(황나미,1997) 영아어머니의 가정간호요구도는 매우 낮으나 활용자원에 대한 정보부족인 것으로 판단되며 자녀돌보기 부담감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가정간호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경자,1997). Olds의(1986)는 산전 및 산후의 영아돌보기 기능에 고위험이 있는 사춘기 미혼모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초산모에게 그들의 자녀가 2년이 될 때까지 간호사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그들 자녀에 대한 체벌빈도감소, 적절한 놀이도구 제공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 애착 그리고 인간사회생태학(human ecology)의 세 개념을 프로그램내용으로 하여 비공식 사회적지지, 문화적 신념의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능력의 평가와 민감하고 반응적인 돌보기증진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에 의한 포괄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미국내 3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던 Olds의(1997)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자녀돌보기 질을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족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요구와 결정적인 영역에서의 자원요구 및 대상자 입장에서 문제들을 파악할수 있다는 또 다른 성과도 얻었음을 보고했다. 한편 Kitzman의(1997)는 출산후 2년간 자녀돌보기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간호 중재의 효과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능력을 15년간 지속시킨다는 것을 그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서 밝혀주었다.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건강간호 제공자들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바 있다(Hogue, 1993). Wolfe(1993)는 1-3년마다의 개별화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아동학대로 초래된 상해와 병원응급실 방문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성공적인 중재였음을 밝힌 바 있다. 뿐 만 아니라 간호사들에게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정방문'과 같은 간호서비스가 일차 및 이차 예방 수준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Browne, 1989)

사회적지지

Lykken(1997)은 현대의 사회적인 병폐는 무능하거나 사회병리적인 혹은 부모역할에 과중한 부담감이 있는 부모들로부터 내던져진 아동들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그들 아동의 출생에서 부터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지지를 통해 부모역할 부담감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Crokenberg(1988)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돌보기 행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형태로서 부모에게 감정이입(Empathy)과 격려를 주는 정서적 지지, 자녀돌보기의 책임이나 역할을 감소시킬수 있는 도구적(Instrumental) 지지와 자녀돌보기에 관한 구체적인 충고나 정보와 관련된 정보차원의 지지(Informational support)가 있다고 하였다.

활용가능한 가족지지체계가 충분하다면 영유아 학대의 발생가능성은 적다. 아동학대의 위험 요인으로서 가족지지체계의 부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Anderson, C L.,1987; Josten, L.,1981) Brazelton(1987)은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의 지지체계로서 조부모의 존재가치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는 젊은 부모들이 임신과 자녀양육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암시하였다. 이와 같이 조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의 매우 품질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사춘기 미혼모들은 자녀 돌보기와 양육에 대한 정보를 그들의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는 아기 달래기, 훈육 그리고 그들 어머니 및 아기 아버지와의 갈등을 자녀양육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모유수유와 사소한 아동기 질환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그들 자녀의 성장과 발달, 안전의 쟁점에 관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Rawlins,1997). Neergaard, J.(1990)는 산전, 산후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정결과, 아동학대가 예측되는 초산모에게 60세 이상의 훈련받은 양조모(foster grandmother)로 하여금 필요로 되는 지지제공과 긍정적인 모성역할 모델을 보여줌으로서 영아의 발달도모와 부모에게는 부모역할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 방법은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가정환경에서 훈련받은 양조모가 동정적인 장기간의 자원이 될 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에 의해 고안되어 영아가 5세가 될 때 까지 팀 접근으로 시도되었다.

학교 양호교사의 역할 활성화

예비부모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부모역할교육은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부모역할의 신념이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고, 손상이 큰 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학대예방은 접근하는 데에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에 팀 접근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은 다양한 현장에서 그들 영유아부모에게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간호실무는 영유아 학대예방의 최일선에 있다.

아동에게 신체, 심리, 사회적 잠재력의 발휘를 저해하는 영유아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우선되어 할 것은 가능한 한 영아초기에 조기발견을 위한 사정이다. 그리고 부모역할수행의 근간, 되는 출생초기자녀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에 개입하여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 모성정체감 및 자존감 증진, 부모의 양육지식 및 기술 습득과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도의 확립, 양육부담감해소에 역점을 두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정간호, 부모 사전건강지도, 학교 양호교사의 활용 그리고 조부모와 같은 가족지지자원 활용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퀸 미경(1997)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117-130

金 勝 權, 曹 愛 姐(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8-04

안 해 영(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송미순(1994), 일개 군지역의 가정간호요구
조사, 간호학회지, 24(3), 484-498

한경자, 박성애, 하양숙, 윤순녕, 송미순(1995), 공공보건조직에서의 방문간호사업
모형개발: 보건진료소 방문간호사업, 간호학회지, 25(3), 472-484

황나미(1996)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평가. 한국보건사회평가원.

연구보고서 96-04

Allasio, D., Fischer, H.(1998) Torture versus child abuse: What's the difference?

Clinical Pediatrics. 37(4), 269-272.

Anderson, C. L(1987). Assessing parenting potential for child abuse risk.

Pediatric Nursing. 13, 323-327 .

Azar,s., and Siegel,B.R.(1990) Behavioral treatment of child abus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Behavior Modification, 14, 279-300

Bigner,J.J.(1985) Parent-Child Relation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Brazelton, T. B(1989). Working parents. Newsweek. 113, 66-70 .

Brazelton,T.B.(1995).Working with families-Opportunities for early intervention.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2(1), 1-9.

Bromwich, R.(1997) Working with Families and Their Infants at Risk. A Perspective
After 20 Years of Experience. Pro-ed

Browne, K.(1989). The health visitor's role in screening for child abuse. Health Visitor,
62(9). 275-277.

Browne, K.(1995). Prevention child maltreatment through community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57-63.

Chestnut,M.A.(1998) High-Risk Newborn Home Care Manual. Lippincott, Philadelphia.
New York. 10

Crockenberg,S(1988)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Theory and Research in Behavioral
Pediatrics. Edt by Fitzgerald,H.E., Lester,B.M., Yogman,M.W.,Plenum Press.New
York and London. 14

Daro, D., McCurdy, K.(1994)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Programmatic
interventions. Child Welfare. 73, 405-430.

Frodi, A.M., & Lamb, M.E(1980) Child Abus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and Cries.
Child Development, 51, 238-241

Gordon,T.(1972)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The "No-Lose" Program for Raising
Responsible Children, Peter H. INC./ Publisher, New York, 1-28

Josten, L.: Prenatal assessment guide for illuminating possible
problems with parenting. MCN 6: 113-117 (1981).

- Lykken,D.T.(1997) Incompetent Parenting: Its Causes and Cur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27(3):129-137
- McCullough, M. & Scherman, A (1998) Family-of-origin interaction and adolescent mothers' potential for child abuse. Adolescence. 33(130), 375-384.
- Olds, D.L., Henderson, C.R., Chamberlin, R., Tatelbaum, R.(1986)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a randomized trial of nurse home visitation. Pediatrics. 78, 65-78
- Olds,D., Kitzman,H., Cole,R., Robinson,J.(1997) Theoretiical Foundations of A Program of Home Visitatioon for Pregnant Women and Parent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25
- Phillips, B.W.(1998) Ignore Child Abuse now, Attend to Adult Social Problems Later Brown University. Child & Adolescent Behavior Letter. 14(8), 10
- Straus, M.A. and Gelles, R. J.(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 Straus, M.A. and Gelles, R. J.(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 Kolko, D.J.(1998)CPS Operatios and Risk Assessment in Child Abuse Cases Receiving Services: Initial Findings From the Pittsburgh Service Delivery Study. Child Maltreatment. 3(3), 262-273.
- Neergaard, J.(1990) A proposal for a foster grandmother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child abuse. Public Health Reports.105(1), 89-94.
- Wolfe D. A. (1993). Child abuse prevention : blending research and practice. Child Abuse Review, 2(3), 153-165.